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17(금) ~ 2024.5.23(목)

제공일시 2024 05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17(금) ~ 2024.5.23(목)

제공일시 2024 05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의료·교육·선거 AI 활용엔 반드시 감독”/ AI워싱 성행에 美 “무늬만 AI 기업 잡아라”

-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현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은 물론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 수준인 범용인공지능(AGI)에까지 적용되는 포괄적인 AI법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AI 규제 스탠더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AI 기술 경쟁이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한편, 돌풍처럼 불어 닥친 AI 기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기관과 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음
- 세계 최초로 AI 헌법과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작되는 것과 더불어, AI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AI 워싱(AI Washing)’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화일보 2024.5.22) 황혜진 기자

(매일경제 2024.5.22) 추동훈 기자

2. 관세전쟁 확산... 中, 美·EU 겨냥 수입차 관세 인상 검토

- 자국 산업을 겨냥한 미국·EU 등의 관세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보복 수위도 강해지고 있음. 중국 역시 수입차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내부(본토) 관계자로부터 중국이 대형 내연기관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EU의 반보조금 조사에 따른 예비 관세 (부과) 준비 같은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치는 유럽·미국 자동차 회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

(이데일리 2024.5.22) 박종화 기자

3. 유럽증권시장감독청 (ESMA), ESG펀드 명명 규정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유럽 내 지속가능성 펀드에 대한 그린워싱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ESG펀드 명명 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발표함
- 초기 제안에서는 펀드 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해당 기준이 펀드매니저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해당 기준을 80%까지 강화했고, ‘지속가능(Sustainable)’ ‘ESG’ 외에도 이와 연관된 일부 키워드에 같은 규제를 적용함
- ESMA는 근시일 내 EU 회원국의 모든 언어로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임.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 게재 3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4.5.20) 송선우 기자

4. 日·아세안, 中 전기차 맞서 ‘공동 전선’ 수립

-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아세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확대에 맞서 공동 전략을 수립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함
-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과 아세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일·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공동 전략을 중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동 전략에는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산업 전체 성장 △제조 공정 탈탄소화 △광물 자원 확보와 바이오 연료 개발 등 차세대 분야 투자 △일·아세안 역외 공동 정보 발신 등 구체적 협력 사안이 포함됨

(아시아경제 2024.5.20) 오수연 기자

1. EU 수출 中企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정부가 직접 지원

- EU에 일정 수준 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함
- 정부는 우선,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함. 1억원 이상을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임
-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지난해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함
- 또,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 솔루션을 개발해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기로 함

(아시아경제 2024.5.22) 김철현 기자

2.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전문가와 원자력 미래 전략 논의

-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이 최고위급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 주목받음
-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돼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힘

(원자력신문 2024.5.19) 유희수 기자

3. 기후변화 홍수·가뭄 대비 물순환촉진기본방침 10년마다 수립된다

- 기후변화로 잦은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해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
-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힘
-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함
-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 평가함

(에너지경제 2024.5.21) 이원희 기자

4. AI 규제 논의 본격화... 빅테크 참여 ‘서울 정상회의’ 개막

- 급격히 발전하는 AI의 부작용이나 악용 우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수장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댐
- 한국과 영국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AI 안전·혁신·포용에 대한 합의문 채택을 추진함
-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 안전성 확보와 규제 대응 등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임

(서울경제 2024.5.21) 김윤수 기자

5. 산림청, 기후변화 대응 위한 ‘맹그로브 연합’ 가입

- 산림청은 지난 1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하고 독일, 인도, 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맹그로브 연합(MAC)’에 가입했다고 밝힘
- 맹그로브 연합은 맹그로브 숲(Mangrove Forest)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협약체임
- 남성현 산림청장은 “맹그로브 연합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재난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함

(포인트데일리 2024.5.18) 송형근 기자

1. 다우, 물·자연 보전 위한 새 지속가능성 발표

- 글로벌 소재 과학 기업 다우는 기존에 추진하던 지속가능성 목표 중 기후 보호(Protect the Climate) 부문을 확대해 물과 자연 보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기후 변화 완화 목표를 세웠다고 22일 밝힘
- 다우는 2030년까지 물 의존도가 높은 상위 20개 사업장의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 10개 사업장이 물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203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다우 사업장에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이를 통해 2050년에는 물 의존도가 높은 상위 20개 사업장이 모두 물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여의도 면적의 약 70배에 달하는 5만 에이커(2억㎡) 규모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투데이 2024.5.22) 이동욱 기자

2. MS 탄소 배출, 30% 폭증... AI가 이유/ MS 공급사에 2030년까지 무탄소에너지 요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영향

- 마이크로소프트(MS)의 탄소 배출이 2020년 이후 3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인프라 확대가 그 배경인 것으로 분석됨. AI 열풍이 기후 위기를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MS 사례로 다시 확인됨
- 한편, MS가 2030년부터는 무탄소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급사에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짐. MS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탄소에너지 달성 목표 시점이 2030년보다 늦어 부담이 커지게 됨
-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같은 날 공개된 MS의 2024년 지속가능 리포트를 인용해 “MS는 대규모 공급업체들에 2030년부터 100% 무탄소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함

(파이낸셜뉴스 2024.5.16) 송경재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2024.5.16) 이근호 기자

3. 아르셀로미탈, 독일 철강 탈탄소화 투자 조건 제시... “저렴한 전력 및 수소 공급 필수”

- 철강 제조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은 17일(현지시각) 저렴한 전기와 재생에너지 및 수소를 충분히 공급 받지 못하면 독일 내 철강 공장의 탈탄소화 계획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가격과 친환경 전기 및 수소의 가용량을 갖춘 기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철강 산업의 생산 능력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임
- 따라서 늦어도 2025년 중반까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아르셀로미탈이 독일 제철소의 탈탄소화를 위해 25억유로(약 3조6880억원)의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힘

(글로벌이코노믹 2024.5.20) 김진영 기자

4. 화웨이, 초고속 전기차 충전망 중국 동맹 출범... 테슬라와 표준화 경쟁

- 중국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와 동맹을 맺고 초고속 충전시설(Superfast Electric Vehicle Chargers)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닷케이아시아가 22일 보도함
- 닷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화웨이는 비야디 등 10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동맹을 맺고, 운전자가 몇 분 안에 도로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고속 충전시설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함
- 컨소시엄 형태로 구축된 초고속 충전시설 네트워크 동맹은 개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차 제조업체는 차량 생산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임

(연합인포맥스 2024.5.22) 배수연 기자

5. 테슬라, 中에 데이터센터 짓나... “FSD 라이선스 판매 가능성도”

- 테슬라가 중국에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저장·처리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함
-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협력사들과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논의 중이고,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AI 칩을 공급받기 위해 엔비디아와도 논의함
- 또,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라이선스로 판매할 가능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짐

(디지털타임스 2024.5.19) 팽동현 기자

1. 포스코그룹, 광양국가산단에 9460억원 에너지 사업 투자

- 포스코그룹이 광양국가산업단지에 9460억원 규모의 에너지 사업 투자에 나섬 [\(더파워뉴스 2024.5.22\) 유연수 기자](#)
- 포스코그룹은 지난 17일 전라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광양시와 집단 에너지 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에 804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기로 함
- 인접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에서 공급받은 천연가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산단 입주기업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임

2. LG엔솔 1100억 투자해 미국 배터리공장 업그레이드, 3.4조 추가 투자 계획도

- LG에너지솔루션이 1100억원 이상 투자해 2010년 미국에 건설한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 업그레이드에 나섬 [\(비즈니스포스트 2024.5.22\) 김호현 기자](#)
- 미국 지역 매체 홀란드센티넬은 2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2010년 개장한 미국 미시간주 홀란드시 146번가 공장 개선 공사에 관한 세금 감면을 위한 신청서를 홀란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함
- 매체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은 2만23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로, 개조에 따른 많은 작업이 예상된다고 말함

3. 현대차, 북미 수소 상용 밸류체인 본격 확장 나선다… ‘ACT 엑스포 2024’ 참가

- 현대차는 20일~23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리는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 ‘ACT 엑스포 2024(Advanced Clean Transportation Expo 2024)’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가함 [\(비즈트리뷴 2024.5.22\) 하영건 기자](#)
-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북미 물류운송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청정 물류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해당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Truck)’의 상품성 개선 콘셉트 모델도 공개함

4. 두산밥캣 북미 사업장,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배치

- 두산밥캣이 미국 사업장에 (주)두산의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하이엑시엄(HyAxiom)’의 연료전지를 구축함 [\(더구루 2024.5.19\) 정예린 기자](#)
- 19일 하이엑시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노스다코타주에 위치한 2개 공장에 하이엑시엄의 고정형 연료전지 ‘퓨얼셀 M400’ 14기를 설치함. 비스마크공장과 그위너 공장에 구축된 연료전지는 각각 3기와 11기임
- 두산밥캣은 하이엑시엄의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5. 고려아연, 호주 뉴잉글랜드에 340MW급 풍력발전소 추진

- 고려아연이 자회사 아크에너지를 통해 호주 뉴잉글랜드 지역에 340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데일리 2024.5.16\) 이권영 기자](#)
- 고려아연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수소사업 강화 일환으로, 호주 현지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크에너지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뉴잉글랜드의 아미데일(Armidale) 지역에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도우보이 윈드팜(Doughboy Wind Farm)’ 개발을 추진 중임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5.17(금) ~ 2024.5.23(목)

제공일시 2024 05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일본의회, 탄소 포집 법안 통과... 수소산업 장려법률도 통과

- 양원제 국가인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자 허가시스템을 확립하는 법안을 17일(현지시각) 통과시켰음
- 카본헤럴드와 NHK에 의하면, '이산화탄소의 저류사업에 관한 법률안(二酸化炭素の貯留事業に関する法律案)'은 일본에서 탄소 포집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결 투표를 거쳐 승인 및 제정됐음
- 이 법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합한 특정 지역을 식별하고, 공개 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허가를 부여해야 함.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이산화탄소를 적립하기에 적합한 지층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하는 '시굴권'과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류권'을 부여받게 됨
- 또, 사업자는 잠재적인 이산화탄소 누출을 모니터링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을 져야 함
- 이 법안이 참议원을 통과한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와 천연가스의 비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이 제안 역시 다수결로 통과돼 법으로 제정됐음
- 이 법안은 △독립 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자원 기구의 업무 △항만법의 특례 △고압가스 보안법의 특례 △도로 점용의 특례 △수소 등 공급사업자의 판단의 기준이 될 사항 등을 비교적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지난 15일 녹색 전환 ETS(GX-ETS)라고 불리는 국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내구성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 사용을 승인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음
- 녹색 전환 ETS는 일본정부의 녹색 전환 정책의 일부임. 녹색 전환 정책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산업 부문의 전환에 150조엔(약 1308조원)을 투자하는 10년 로드맵임
- 일본 ETS의 1단계는 2026년 3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기준선 및 학점 인정형 시스템에 일본 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임. 2026년 이후 의무 ETS로 전환됨
- ETS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두 가지의 규제 탄소배출권 제도, 즉 공동 신용 제도(JCM)와 J-크레딧(Credit) 제도를 반영했음. 허용되는 탄소 제거 방법론에는 탄소 포집 및 활용(CCU),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 연안 블루 카본, 직접 공기 탄소 포집 및 저장(DACCS)이 포함됨
- 다만, 향후 정부 연구 및 심의회 논의 결과나 이미 검토 중인 다른 방법론 작업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다른 방법이 추가될 수도 있음

(인팩트온 2024.5/21) 홍명표 기자